

석사학위논문

재조일본인
가토 헤이타로(加藤平太郎)의
곡물업 경영과 조선 지배 협력

2025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한 동 윤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조규태

재조일본인
가토 헤이타로(加藤平太郎)의
곡물업 경영과 조선 지배 협력

Heitaro Kato's management of grain industry and
his cooperation to Japanese domination in Joseon

2024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한 동 윤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조규태

재조일본인
가토 헤이타로(加藤平太郎)의
곡물업 경영과 조선 지배 협력

Heitaro Kato's management of grain industry and
his cooperation to Japanese domination in Joseon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한 동 윤

한동윤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권기중 (인)

심사위원 조규태 (인)

심사위원 윤성호 (인)

국 문 초 록

재조일본인 가토 헤이타로(加藤平太郎)의 곡물업 경영과 조선 지배 협력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한 동 윤

본 논문은 가토 헤이타로(加藤平太郎)의 곡물업 경영과 조선지배 협력 활동을 살펴본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재조일본인 가토의 조선 정착과 가토정미소 창립, 곡물 유통망의 장악과 조선정미(주)로의 발전, 중일전쟁 지원과 ‘가토 그룹’으로의 견인 과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토가 조선 총독부, 일본 군부 등과 어떠한 관계 하에서 기업의 발전을 이루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위하여 먼저 딸이 가내와 회사자료를 활용하여 쓴 가토 전기와 재조일본인 사전, 기업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신문과 잡지 등의 기사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밝혀진 것은, 첫째, 가토는 해상운송에 종사한 친가와 입양가의 영향을 받아 무역업에 종사하였고, 청일전쟁 무렵 진남포에 정착하여 입양가인 사이토의 상점 하에서 정미업을 터득하여 가토정미소를 설립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가토는 진남포, 인천, 부산, 군산 등 철도와 항구가 연계된 주

요 지역으로 정미 공장을 확장해가며 조선의 미곡유통망을 장악하였고, 정미업 외에 미강유 착유업, 미곡 거래, 농장 투자 등이 주식회사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셋째, 중일전쟁으로 인한 미곡통제체제 하의 일제의 전시 식량 통제 정책에 협력하고, 철강, 미강유 제유 등 타 업종 시도, 중국으로의 사업 진출을 통하여 자신의 정미회사를 ‘그룹’으로 견인해갔다는 것이다. 결국 미곡업자인 가토는 일제의 조선침략과 지배에 협력하고, 조선총독부·군부와의 유착을 통하여 성장해나갔다. 그러므로 그는 일제의 조선침략과 지배에 대한 협력자였다.

향후 식민지 시기 정미업과 미곡무역업에 종사한 재조일본인 자본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이어 양조업, 제과업 등 미곡을 활용한 기타 산업을 경영한 일본인 기업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주요어】 가토 헤이타로, 재조일본인, 곡물업, 정미업, 가토정미소, 조선정미, 사이토 히사타로, 조선지배, 전시체제

목 차

I. 머리말	1
II. 조선 정착과 가토정미소 창립	5
III. 곡물 유통망의 장악과 조선정미(주)로의 발전	11
IV. 중일전쟁 지원과 ‘가토 그룹’으로의 견인	24
V. 맺음말	33
참 고 문 헌	35
ABSTRACT	39

표 목 차

[표 1] 가토정미소 각 공장의 생산능력과 설비	13
[표 2] 수출항별 미곡이출량(천석)	14
[표 3] 가토 경영 회사의 자본금 추이	17
[표 4] 가토정미소·가토식산(주)·조선정미(주)의 자본금과 지주 현황(1935~1937)	24
[표 5] 가토정미소와 조선정미(주)의 자본금과 지주 현황(1937~1941)	25
[표 6] 중일전쟁·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가토 헤이타로의 국방헌금 활동	27

그림 목 차

[그림 1] 일본 야마구치현 쿠마게군 지도	6
-------------------------------	---

I. 머리말

일제의 조선 지배는 좁게는 관료, 경찰, 군인이 주관하였으나 넓게 보면 조선에 와서 거주하며 활동한 학자, 교육자, 의료인, 기업가 등의 일반인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¹⁾ 이들은 식민주의 사관의 형성과 확산, 근대적 의료의 시행을 통한 한인 회유, 경제적 기반의 장악과 한인 제어 등을 통하여 일본의 식민통치에 기여하였다. 특히 조선에 있던 일본인 기업가는 농림업, 수산업, 광산업, 정유업, 목축업, 토목청부업, 미곡업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발전을 통해 조선에 대한 경제적 지배체제를 형성하고 다른 한편 일제의 침략과 식민통치에 협력하였다.²⁾

그중 미곡업자는, 쌀의 수집과 정미와 유통에 관련되었기에, 일본의 한국 진출과 지배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을 뿐 아니라 한인의 생명과 주요 경제활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조선에 진출한 일본군과 재조일본인에게 식량을 공급함으로써 일본의 한국 침략과 지배에 협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전체 인구의 70~80%가 농민인 한인의 주요 생산품인 쌀의 정미와 보급, 수출과 가공 등에 관여함으로써 한인의 생명과 경제의 핵심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1) 이형식, 「재조일본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학』 37, 2013, p.2.; 전성현, 「식민자와 식민지민 사이, '재조일본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 『역사와 세계』 48, 2015, p.4.; 조규태, 「일제강점기 돈암리 이주민 히라야마 마사쥬(平山政十)와 平山牧場」, 『송실사학』 46, 2021, p.1.

2)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가 된다. 최원규, 「일제하 일본인 지주의 진영농장 설립과 경영 -촌정길병위(村井吉兵衛)와 박간방태랑(迫間房太郎)을 중심으로-」, 『학림』 45, 2020. ; 코노 노부카즈, 「일제하 중부기차랑(中部幾次郎)의 임점상점(林兼商店) 경영과 수산개발(水産財閥)로의 성장」, 『동방학지』 153, 2011.; 이가연, 「진남포의 '식민자'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의 자본축적과 조선인식」, 『지역과 역사』 38, 2016.; 배석만, 「재조일본인자본가 다테이시 요시오(立石良雄) 일가의 기업 활동」, 『한일민족문제연구』 32, 2017.; 배석만, 「부산항 매축업자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의 기업 활동」, 『한국민족문화』 42, 2012.; 김명수,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토목청부업자 아라이 하즈타로(荒井初太郎)의 한국진출과 기업 활동」, 『경영사연구』 26(3), 2011.

이처럼 재조일본인 미곡업자의 역할이 지대하였기에, 지금까지 재조일본인 정미업자·미곡수출업자의 자본축적 활동에 대하여 약간의 검토가 있었다.³⁾ 후지이 간타로를 분석한 이규수는 후지이의 농장 경영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인천에서 정미소 출장점을 운영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오이케 츠스케를 분석한 전성현은 오이케의 무역업, 여관업 등을 검토하면서 부분적으로 부산에서 정미부 운영을 하고 일본군에 군량미를 공급하였음을 밝혔다. 요시다 히데지로를 분석한 이가연은 요시다의 해운업 등을 살펴보면서 부분적으로 정미업도 시도하였음을 밝혔다. 사카타 분키치를 분석한 김예주는 사카타의 경제활동과 전기부영운동(電氣府營運動)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부산에서 정미소를 경영하였음을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재조일본인들의 정미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정미업 위주로 경제활동을 한 가토 헤이타로(加藤平太郎)에 대하여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사례를 통하여 재조일본인 정미업 종사자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토 헤이타로(加藤平太郎)는 재조일본인으로 일제의 조선 지배에 협력한 곡물업자이다. 1894년 평안 진남포로 이주한 그는 사이토상점(齋藤商店)의 점원으로 일한 후 1918년 진남포에 합자회사 가토정미소를 설립하였다. 가토 헤이타로는 정미업, 곡물 매매업 뿐만 아니라 운수, 창고 등의 부대사업도 병행하여 1936년에는 자본금 500만 원이 넘는 조선정미(주)로 발전시켰다. ‘반도의 정미왕’으로 불린 그는 인천곡물협회 회장, 조선정미연합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인천의 곡물업자와 전국의 정미업자를 통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중일전쟁 발발 이후 그는 일본군에 군용미를 납품하고, 조선식량영단의 평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시 국민의 식량배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군용기를 헌납함으로써 일제의 조선지배와 대외침략에 협력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하였기에 가토 헤이타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 근대사에 있어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첫째 그가 미곡업의 경영과 유통망의 장악을

3) 이규수, 「후지이 간타로(藤井寛太郎)의 한국진출과 농장경영」, 『대동문화연구』 49, 2005.; 전성현, 「식민자와 조선 - 일제시기 大池忠助의 지역성과 '식민자'로서의 위상」, 『한국민족문화』 49, 2013.; 이가연,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길전수차량(吉田秀次郎)의 자본축적과 '식민자'로서의 지역적 위상」, 『지역과 역사』 43, 2018.; 김예주, 「식민지 시기 부산의 일본 기업인 사카타 분키치[坂田文吉]의 사회활동과 전기부영운동」, 『인문사회과학연구』 21(3), 2020.

통해 일제의 식민지배에 협력한 방식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전시체제가 일본의 대외침략에 어떻게 협력하고 그 대가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것을 통하여 그의 경제활동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가토 헤이타로가 식민지 조선의 미곡 관련 산업의 경영과 조선 지배에 있어서 차지하는 역할이 컸으므로 지금까지 그에 대하여 약간의 검토가 있었다.⁴⁾ 먼저 그의 딸 가토 야치요(加藤八千代)는 부친의 업적에 관한 전기를 간행하였다. 다음으로 최재성, 정운환 등은 가토정미소의 창립 시기, 생산능력 등을 밝혔다. 한편 민윤, 예지숙 등은 인천·군산 등지에서의 정미소 경영을 다루면서 가토정미소가 조선인 근로자에 부당한 대우를 하여 초래된 조선인의 파업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김승은 부산의 일본경제인의 실태를 살피면서 가토정미소의 정미사업과 수출 지역 등을 밝혔다. 백주영은 1920~30년대 선미옹호운동(鮮米擁護運動)을 다루면서, 가토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벌인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딸 야치요의 연구는 아버지의 업적을 찬미하고 미화하는 입장에서 서술되었고, 다른 연구는 가토를 전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가토라는 인물의 조선에서의 미곡업 경영의 실제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가토 헤이타로의 곡물업 경영을 통한 성장을, 일본의 조선 진출과 지배 및 대외침략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장에서 가토의 ‘전쟁특수’의 경영 습득과 가토정미소의 설립을 일본의 조선 진출 및 지배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둘째 장에서는 가토가 정미업 외에 미강유업과 창고업 등 곡물유통망을 장악하여 일제의 조선 지배에 협력하며 조선정미(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장에서는 중일전쟁 이후 가토가 식량 공급·배급 및 국방

4) 加藤八千代, 『籾から精米・糠から油を: こめ油工業化の創始者加藤平太郎一代記』, 東京: 加藤平太郎伝刊行会, 1978.; 加藤八千代, 『加藤平太郎人と事業: こめ油工業の先達』, 東京: 幸書房, 1991.; 민윤, 「日帝下(1920~30년대) 仁川精米労働者の 罷業과 階級意識」, 『인천 연구』 1, 인천연구원, 2007.; 김승, 「1920~1930년대 재부(在釜) 일본경제인의 실태와 교역권의 특성」, 『해항도시문화교섭학』 4, 2011.; 백주영, 「1920-30년대 선미옹호운동(鮮米擁護運動) 세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최재성, 「상공인명록을 통해 본 1930년대 초 인천지역 기업 활동」, 『인천학연구』 30, 2019.; 정운환, 「1910~1920년대 仁川 精米業에 대한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예지숙, 「1920년대 인천 선미여공의 존재 양상과 집단 저항」, 『여성과 역사』 38, 2023.

현금 등을 통하여 조선정미(주)를 ‘가토 그룹’으로 성장시키는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 참고한 자료로는, 첫째, 전기 자료로 가토 헤이타로의 딸인 가토 아치요가 저술한 『朶から精米・糠から油を : こめ油工業化の創始者加藤平太郎一代記』와 『加藤平太郎と事業: こめ油産業の先頭』를 활용하였다. 특히 정미소 창립 이전 헤이타로의 행적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전반적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활용하였다. 둘째, 곡물의 보관, 배급, 통제 등의 방식에 대한 가토의 견해, 신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선농회보』, 『조선공론』 등 잡지들에 게재된 가토의 기고문들을 활용하였다. 셋째, 가토의 기업 경영 성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조선총독부관보』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넷째, 조선의 인물과 사업 제1편 호남편』 등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사전을 활용하였다. 다섯째, 『중외일보』, 『매일신보』, 『조선신문』, 『중앙일보』, 『경성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 기사를 활용하였다. 조선총독부 및 군부와의 관계, 전시체제가 일제의 국책에 대한 가토의 적극적인 협력 활동 등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Ⅱ. 조선 정착과 가토정미소 창립

가토 헤이타로는 1881년 6월 17일 일본 아자오국(字尾國), 현 야마구치현(山口縣) 쿠마게군(熊毛郡) 히라오초(平生町)에서 모친 가토 카메(加藤カメ)와 同村 M모와의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조부 야고로(彌五郎)와 조모 마쓰다 리에(松田リエ)의 호적에 아들로 등재되어 이들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였다.⁵⁾

가토가 출생한 쿠마게군은 야마구치현의 동남부에 위치한 120호의 세대가 거주하는 작은 어촌이었다.⁶⁾ 세토내해(瀬戸内海)에 연한 한 항구로 오사카(大阪)에서 개국 이후 국제항으로 발전한 시모노세키(馬關)로 향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일본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다.⁷⁾ 따라서 그는 어려서부터 해상무역의 분위기를 몸에 익힐 수 있었을 것이다.

5) 加藤八千代, 위의 책, 1978, p.10., 전기에서는 가토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호적에는 미오랑이 아버지, 리헤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

6)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10. 이 현에 소속된 도시 중 하기(萩市)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 일본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정치인들이 다수 배출된 곳이다. (허영란, 「열린 변방, 조슈(長州) - 메이지유신의 발상지」, 『역사비평』 81, 2007, p.11.)

7) 허영란, 앞의 논문, p.6.

見)에서 운영하던 선숙(船宿)에서 생활하였다. 이때 가토는 사이토의 친자처럼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가토는 어머니와 함께 사이토를 따라서 쓰시마(對馬)로 이주하였다. 그는 쓰시마의 니타촌소학교(仁田村小學校)에서 수학하다 중퇴하였다. 그러다 9살 때 모친 카메를 여의어 사이토 히사키치(濟藤壽吉)의 집안에 맡겨졌다. 이는 전술하였듯 가토 집안과 사이토 집안이 그동안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¹²⁾

가토는 1892년 11살 때는 조선, 규슈(九州), 간사이(關西), 주고쿠(中國), 시고쿠(四國) 등을 오가며 화물을 운송한 텐진호에 승선하여 일하였다. 그는 여기서 취사부(炊事夫)로 활동하며 히사키치의 아들로 부친과 이 선박을 함께 운영한 사이토 히사타로(齊藤久太郎, 1874년생)에게서 직접 장사수완을 익혔다. 그런데 1894년 11월 3일 이 선박이 진남포로 향하다 대동강에서 결빙으로 좌초됨에 따라 상륙하였다. 가토는 강의 해빙 시기까지 평양에서 소의 반출을 파수하는 일을 담당하다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이후 가토는 1895년 사이토 히사타로가 초빙하여 평양으로 가서 사이토상점의 점원으로 일하였다. 상점의 노동력이 부족해져 사이토의 부탁으로 왔던 것이다. 가토가 들어간 이 상점은 사이토가 1895년에 청일전쟁 종군 후 설립한¹³⁾ 잡화상으로 램프 뚜껑과 같은 이 당시 조선 서민들의 생활용품들을 취급하였다. 가토는 이곳에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것에 종사하면서 장사에 대하여 배우기 시작하였다.

1897년 진남포의 개항¹⁴⁾ 후 사이토상점이 정미업을 개시하자¹⁵⁾, 가토는 점

12)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p.15-21.

13)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44.; 전쟁의 발발로 일본군은 보급품과 생필품의 마련이 어려워 지게 되자 일본 상인 약 500여 명이 모여 들었다고 하는데, 사이토도 이때 평양으로 진출한 것이다.(前田力 편, 『진남포부사』, 진남포: 진남포부사 발행회, 1926, pp.19-20.) 그리고 히사타로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 시바 고로(柴五郎) 사령관의 통역으로 활동하였다.(조선총독부, 『기념표창자명감: 조선총독부 시정이십오주년』, 1935., p.946.)

14) 前田力 편, 앞의 책, p.26.; 진남포는 일본의 계속되는 요구와 국제 열강의 조선 이권 경쟁의 상황 속에서 1897년 10월 개항되었고 이후 외국인의 유입으로 각국거류지로 전환되었다. (김경남, 「1894~1910년 진남포 일본군병참기지 건설과 도시 형성의 특성」, 『한일관계사연구』 71, 2021, pp.13-14.)

15) 진남포 개항 당시 항구 주변의 평양·안주·재령평야에서 생산되는 미곡의 생산량이 풍부하여 진남포에 도항한 일본인 중 이 점을 이익 확대의 수단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고, 상층자본가 중에

원으로서 정미의 생산, 거래 등을 보조하였다. 사이토가 일본인 거류민의 증가에 맞추어 엔저먼식 정미기 10대를 가동하며 정미업을 하자, 가토는 평목(平木)을 이용한 능숙한 계량과 효율적인 공정의 운영 등을 통해 사이토상점이 수익을 거두는 데 도움을 주었다.¹⁶⁾

1902년 백동화 불법 주조 혐의로 퇴거 명령을 받은 사이토를 대신하여 일본에 갔다가 돌아온 가토는¹⁷⁾ 1903년부터 사이토상점 산하 진남포공장의 정미업을 총괄하였다. 그러면서 사이토상점에서 생산한 백미를 일본 외에 러시아의 조차지인 중국 대련(大連)에 수출하는 일도 맡았다. 대련의 활발한 국제무역의 상황¹⁸⁾을 보고 그는 국제무역에 대한 꿈을 가졌을 듯싶다. 1904년 러일전쟁 중에는 전쟁특수를 활용하여 일본군의 어용상인으로서 종사하기도 하였다. 종전 이후 그는 인천에서 미국인 타운젠트가 사용하던 앵겔식 정미기를 시찰하고 진남포 공장에 도입하여 정미의 생산성을 증대하였다.¹⁹⁾

1906년 사이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수리조합조례 위반으로 구속되자 가토는 1907년 사이토가 석방될 때까지 사이토상점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때 평양, 진남포, 사리원, 중국 대련 등지에서의 사이토 가문과 관련된 일을 전적으로 책임졌다.²⁰⁾

는 청일전쟁과 관련성을 지니거나 도항 이전에 해운업, 상업 등의 업종을 지니고, 초기에는 선상무역을 하다가 이후 미곡 무역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토와 사이토도 이와 유사한 도항자였다.(이가연, 「개항장 일본인 자본가 연구: 러일전쟁 이전 이주 상층자본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24, pp.80-81.)

16)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49, 52., 엔저먼식 정미기는 눈을 가린 말이 끌고 다니는 듯한 형태의 기계이다.

17) 1899년 대한제국의 화폐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사이토는 가짜 백동화를 주조하였고 이것이 적발되어 세관에 의하여 퇴환 명령을 받자 가토가 대역(代役)으로서 일본으로 갔던 것이다. 가토는 퇴환 명령 조치 기간 동안 일본에서 어업, 농업 등에 종사하고 구마모토상점(熊本商店)에서 근무하다 1903년 조치 해제로 평양으로 돌아온 것이다.(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56, pp.58-59.)

18) 이 당시 러시아는 대련의 항만을 상업무역 기지로 개발하면서 1902년부터 화물유입량이 증가하여 경제와 무역이 번성하고 있었다.(XIE LI, 「20세기 초 大連 항만의 하역체제와 노동자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34.), 그리고 이 당시 만주산 대두로 콩깻묵과 두유를 제조하는 유방업이 대련 지역의 경제를 지지하고 있었다.(關東局文書課 編, 『關東局施政三十年業績調査資料』. 旅順: 關東局文書課, 1937.) 가토와 사이토는 이러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

19)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64, 72.

20)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p.74-76.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기업열에 힘입어 사이토 기업이 러시아와 중국에 국제무역을 하고 미강업과 제분업 등 관련 분야로 진출하자²¹⁾, 가토는 이전보다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이토가 만주 일대에서 타 분야 육성에 신경을 쓰는 동안, 가토는 진남포정미소 외에도 평양의 본사 및 각 지점, 출장소의 업무를 책임졌다. 또한 러시아와의 곡물 거래도 관할하여 1916년~1917년에 군용미 1만 석을 거래하기도 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교전국으로 참전한 점을 고려하면 그가 제1차 세계대전의 특수로 효과를 보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²²⁾

이러한 경험에 힘입어, 가토는 1917년 11월 사이토상점에서 나와 독립의 길로 나아갔다. 전기에서는 사직의 동기로 러시아와의 군용미 거래 등 자신이 사이토상점에서 하는 업무의 과중함, 사택 주거환경의 불편함, 배우자인 치요(チ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 가토와 그의 사촌 간의 갈등 등이 제시되었다.²³⁾ 그런데 이러한 것만을 가지고 가토의 독립에 대하여 검토할 수 없다. 독립하고 싶은 열망과 자본의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한편 이 시기 일본에서 미곡의 부족으로 미가가 등귀한 점²⁴⁾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또한 사이토 기업이 서울과 인천에서 주조와 제분을 중심으로 영업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가토가 사이토로부터 진남포의 정미업을 넘겨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²⁵⁾

가토는 1918년 10월 5일 진남포부 아사히초(旭町) 10번지에 가토정미소를 창립하였다.²⁶⁾ 그가 회사를 진남포에 세운 것은, 진남포가 서해에서 평양으로

21) 사이토는 유방업으로 사이토유방(齋藤油房)을 지점공장으로서, 제분업으로는 중국 대련, 봉천(奉天), 장춘(長春) 등에 중화제분(中華製粉)과 같은 제분공장들을 설치하였다.(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92.)

22)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p.74-75, p.89, 92.; 中田孝之介, 앞의 책,

23)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75, pp.92-93.

24) 이영학,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 『한국민족문화』 69, 2018, pp.3-5.

25) 사이토는 사이토주조(齋藤酒造)(1918년 설립), 토요쿠니제분(豊國製粉)(1921년 설립), 경성창고금융(京城倉庫金融)(1921년 설립) 등 정미업 외의 타 업종의 기업 경영에 관여한 것에서 그의 경영 방식에 있어 변화의 면모가 보이는데(中村資郎,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경성: 동아경제신문사, 1927, p.163.; 中村資郎, 앞의 책, 1931, p.148.; 中村資郎, 앞의 책, 1933, p.25.), 그의 가토로의 정미업 운영 양도의 움직임이 가토의 독립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판단된다는 것이다.

26) 『조선총독부관보』 1918년 10월 25일, 부령 1865호.

진입할 시 지나야 하고, 대련항과도 근거리로 국제무역항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일본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상당 수 이주하여 일본인 전관거류지에 근접하게 변화해갔고,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토지를 상당히 점유해간 상황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²⁷⁾

가토가 설립한 가토정미소는 합자회사였다. 가토는 중국인 화교의 회의소 대표인 황극지(黃克志), 한인 측의 이종섭(李鐘燮), 노기원(魯起元)과 창립하였다. 가토는 25,500엔, 황극지, 이종섭, 노기원이 각각 8,500엔을 투자하였다.²⁸⁾ 노기원은 가토정미소 설립 관여 이전에 진남포객주조합의 역원을 역임하였고²⁹⁾, 가토정미소 설립 이후 진남포창고(주)의 이사에 있었다.³⁰⁾ 이종섭은 진남포창고(주)의 이사, 대동은행의 감사 등을 지냈다.³¹⁾ 이렇게 가토가 중국인과 한인까지 포섭하여 합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안정적인 미곡의 공급과 판매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27) 김경남, 위의 논문, p.34-35.

28) 中村資郎, 위의 책, 1923, p.193.

29) 『매일신보』, 1916.06.17., <진남포: 명치신궁봉찬회, 객주조합 역원>.

30) 中村資郎, 위의 책, 1923., p.100.

31) 中村資郎, 위의 책, 1923., p.100.: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2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회사조합자료, <大同銀行(株)>.

Ⅲ. 곡물 유통망의 장악과 조선정미(주)로의 발전

창립 직후 가토정미소의 주요 사업은 정미업, 곡물거래, 미강유업, 창고업, 농장 경영 등이었다.³²⁾ 정미업은 원료인 벼의 백미·현미로의 도정, 곡물거래는 배의 구매와 백미·현미의 판매, 미강유업은 벼를 활용한 기름의 생산과 판매, 창고업은 벼와 백미·현미의 보관, 농장 경영은 조선의 일부 지방에서 벼의 생산을 하는 사업이었다.

정미업에 주력한 그는 먼저 진남포 본점의 시설을 개선하여 생산량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그는 벼를 백미로 정제하는 설비와 이것의 개량에 고심하였고 20~30만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여 공장의 기계를 수리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전 소재 나카무라정미소(中村精米所)로부터 중고 정미기를 매입하고 도정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기도 하였다. 이어 그는 일관적으로 원료인 벼를 현미로 도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백미로 도정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고 한다.³³⁾

다음으로 그는 1919년 8월 인천에 공장을 건설하였다. 인천공장은 공장의 면적이 약 6,500평이었고, 300마력의 스팀 원동기, 인접기(籾摺機) 16대, 앵겔식 정미기 6대를 지니고 있었다.³⁴⁾ 이곳에 지점을 설치한 것은 연안 매립으로 경인선이 항구까지 연결되었고, 배에 짐을 실어주는 선거가 설치되었으며, 인천미곡상조합과 인천정미업조합 등의 미곡 무역조직이 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토정미소 인천지점 공장의 바로 앞에는 제2선거가 면해 있었다³⁵⁾

1930년 6월 17일에는 부산으로 진출하여 공장을 신설하였다. 부산공장은 부지가 약 6천여 평³⁶⁾, 공장건물이 1,500평, 창고건물이 2,350평이었다. 설비로는 보일러 2기를 가동하였고 700여 마력으로 공정을 진행하였다.³⁷⁾ 가토가

32) 鎌田白堂, 『朝鮮の人物と事業. 第1輯, 湖南篇』, 京城: 實業之朝鮮社出版部, 1936, p.201.

33) 紅葉山人, 『齊藤久太郎と加藤平太郎』, 『조선공론』 314호, 1939, p.26.

34)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137, 175.

35) 정윤환, 위의 논문, pp.47-58.

36) 『조선신문』, 1930.06.17., 4면 5단, 〈加藤精米所釜山に進出〉.

부산으로 진출한 것은, 1928년 무렵 부산항이 조선 내 미곡무역에 있어 우위를 점하는 등 미곡무역이 활성화되고³⁸⁾, 같은 해 제2잔교도 건설되어 용이한 유통환경이 갖추어진 것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³⁹⁾

1932년 10월에는 진남포에 제2공장을 건설하였다.⁴⁰⁾ 진남포2공장은 자본금이 120만 원이고 450마력의 스팀 원동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규 근로자는 472명이었는데, 출곡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1,000여 명을 한시적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다.⁴¹⁾

1933년에는 군산으로 진출하여 군산역 부근의 철도부지에 공장을 건설하였다.⁴²⁾ 그 전후로는 군산공장은 부지 7,454평, 공장건물 1,295평, 창고 2,024평의 규모를 지녔다. 설비로 미강을 연료화한 53마력의 전동기, 정미기 101대, 인접기(籾摺機) 12대, 제유기 1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⁴³⁾ 가토가 군산에도 진출한 것은, 1912년 군산선의 부설⁴⁴⁾, 1930년의 해망동 일대와 도선장의 매립을 통한 항만의 확장⁴⁵⁾, 1931년 8월의 군산 인근의 판교와 남포 간의 충남선 개통 등으로 유통망이 구축된 것⁴⁶⁾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1930년대 가토정미소의 본점과 지점의 설비와 생산능력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진남포 1공장과 2공장은 1935~1936년에 각각 53

37)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p.180-182.

38) 『부산일보』, 1928.01.24., 3면 5단, <부산에서의 미곡무역 발달 촉진과 거래소[取引所] 급설, 이 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

39) 『조선신문』, 1928.03.18., 4면 1단, <竣工した釜山第二棧橋>.

40) 『조선신문』, 1932.08.26., 5면 8단, <理想へ精進の鎭南浦, 加藤精米大躍進, 一日の生産五千石>.

41) 加藤八千代, 『籾から精米・糠から油を: こめ油工業化の創始者加藤平太郎一代記』(東京: 加藤平太郎伝刊行会, 1978), pp.190-191.

42) 『경성일보』, 1933.10.24., 5면 5단, <加藤精米所の進出に替える群山の業者, 一日千五百石の精米能力, 奥地生産者は潤ふ>.

43) 加藤八千代, 『籾から精米・糠から油を: こめ油工業化の創始者加藤平太郎一代記』(東京: 加藤平太郎伝刊行会, 1978), p.185.

44) 『매일신보』, 1912.03.07., 2면 7단, <群山線の 개통>.

45) 이성호, 「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 -군산시의 사례」, 『쌀삶문명 연구』 1, 1998, p.197.

46) 『조선신문』, 1931.07.30., 4면 3단, <京南鐵道忠南線開通, 藍浦板橋間>.

대, 76대의 정미기를 가동하였다. 1공장은 1926년경 1일당 백미·현미 각각 800석 내외를, 2공장은 1933년 1일당 1,000석의 미곡을 생산하였다. 인천공장은 1933년 기준 20대, 1935~1936년 기준 최대 95대의 정미기를 가동하였다. 1926년경 기준 1일당 백미·현미 각각 800석, 1933년 기준 백미 1,500석, 1935년 기준 백미 약 1,096석을 생산하였다. 부산공장에서는 1935년~1936년 정미기 96대를 가동하여 약 3,288~3,562석을 도정하였으며, 군산공장에서는 1935~1936년 101대의 정미기를 사용하여 약 3,288~3,562석을 도정하였다.

〈표 1〉 가토정미소 각 공장의 생산능력과 설비⁴⁷⁾

공장명 (설립연도)	생산능력(기준연도)	설비마력(기 준연도)	설비대수(기준연도)
진남포 1공장 (1918)	일당 백미·현미 각 800석(1926) (연간 백미·현미 각 288,000석)	350(1931)	정미기 53대(1935-1936)
진남포 2공장 (1933)	일당 백미·현미 각 800석(1926) (연간 백미·현미 각 288,000석)	-	정미기 76대(1935-1936)
	일당 백미·현미 각 1000석(1933) (연간 백미·현미 각 360,000석)		
인천공장 (1919)	일당 백미·현미 각 800석(1926) (연간 백미·현미 각 288,000석)	300(1933)	정미기 20대(1933) -> 정미기 95대(1935-1936)
	일당 백미 1500석(1933) (연간 540,000석)		
	백미 약 1,096석(1935) (연간 394,560석)		
부산공장 (1930)	일당 전체 약 3,562석(1935) (연간 1,282,320석)	700(1935) -> 750(1936)	정미기 96대(1936)
군산공장 (1933)	일당 전체 1,500석(1933) (연간 540,000석)	53(1932) ->	정미기 101대(1935-1936)
	일당 약 3,562석(1935) (연간 1,282,320석)	500(1933)	

47)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175, 185, 244.; 『조선신문』, 1931.10.03., 5면 8단, 〈年額二十數萬石を移出する斯界の覇者, 加藤精米所〉.; 『경성일보』, 1933.04.22., 6면 8단, 〈加藤王國, 三地の精米實に百萬石〉.; 『경성일보』, 1933.06.21., 4면 8단, 〈加藤精米所群山に進出, 大急ぎで工場新築今秋から操業開始〉.; 『매일신보』, 1935.11.20., 5면 5단, 〈朝鮮精米界王座加藤精米所〉.; 민중시론사조선공로자명감간행회, 『조선공로자명감』, 경성: 민중시론사조선공로자명감간행회, 1935., p.645.; 『경성일보』, 1933.10.24., 5면 5단, 〈加藤精米所の進出に替える群山の業者, 一日千五百石の精米能力, 奥地生産者は潤ふ〉.

가토정미소는 1933년에는 네 공장의 총 백미 생산고가 연간 400만 석을 초과하였다. 1935년 기준으로는 조선에 소재한 공장들에서 각각 연간 120~130만 석, 총 약 480~520석을 생산하였다.⁴⁸⁾ 이 생산량은 <표 2>와 같이 1928년·1930년·1932년·1934년·1936년·1938년 조선에서 외국으로 이출한 쌀의 양의 약 50%를 넘는 막대한 양이었다.

〈표 2〉 수출항별 연간 미곡이출량
(1928·1930·1932·1934·1936·1938년, 천석)

	인천	부산	군산	진남포	기타 ⁴⁹⁾	합계
1928	1,599	1,754	1,645	1,001	1,011	7,010
1930	1,331	1,109	1,078	902	747	5,166
1932	1,654	1,766	1,652	1,136	1,272	7,478
1934	2,028	2,018	2,345	1,445	2,006	9,483
1936	1,466	2,098	1,952	1,147	2,243	8,897
1938	1,847	2,815	1,830	983	2,299	9,774

가토정미소는 일제의 통치기관과 거래를 하였다. 가토는 회사 경영 초반에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벼를 원료 상태로 확보하였다. 특히 그가 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중해임공사(中海林公司)의 중역 우에다 분자부로(上田文三郎)의 도움을 받았다.⁵⁰⁾

그는 일본군에도 미곡을 납입하였다. 1920년대 원료를 백미로 도정하여 일본군 용산사단에 납품하여 폭리를 취하였다.⁵¹⁾ 1934년에는 가토정미소 측에서 일본 농림성에서 수매한 쌀 중 인천에 보관되고 군용미로 처분된 쌀 중 일부를 백미로 가공하여 만주로 수송하였다.⁵²⁾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하여 가토가 장기적으로 일본군에 납품을 해옴으로써 이를 배경으로 자본을 축적

48) 『매일신보』, 1935.11.20., 5면 5단, 〈朝鮮精米界王座加藤精米所〉.

49) 목포, 용암포, 신의주, 원산 및 그 외 지역 항구들의 미곡이출량을 합한 수치이다.

50)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109, p.113.

51) 『경성일보』, 1926.01.12., 1면 4단, 〈龍山師團の納入米に多量の外米を混入, 巧妙なからくりで二年間も忠良な將卒を瞞着してみた, 鎮南浦の御用商人〉.; 1924년 4월부터 가토가 사단에 납품하는 조선미에 약 1/3 이상 외미를 혼입하여 폭리를 취한 것이 용산사단에 의하여 폭로되기도 하였다.

52) 『매일신보』, 1934.04.11., 8면 5단, 〈仁川政府米 軍用米로 處分〉.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34년의 만주에 진출한 일본군에 군용미를 공급함으로써 일본의 대륙 침략을 지원하였던 것이다.

미강유업으로는, 정미공장과 마찬가지로 부산, 군산, 인천, 진남포 등에 미강유 제유공장을 건설하였다.⁵³⁾ 그리고 후쿠오카(福岡)에서 철공소를 경영하고 있었던 스에츠구 미쓰오(末次三男)와 함께 1932년부터 미강유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스에츠구로부터 유채유 착유기 1대를 확보하여 인천공장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채산에 부적합하여 압착식으로 전환하여 1934년에는 진남포공장과 부산공장에도 착유기를 두었다.⁵⁴⁾ 착유업 개시 후 가토정미소의 각 공장에서 1달에 15만 근의 미강유를 생산하였으며 이것은 공업용, 식료용으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연료용으로도 쓰였다.⁵⁵⁾ 가토의 전기에서는 그의 미강유 생산의 의도를 정미생산의 증가에 따른 쌀겨 생산량의 증대로 인한 후속처리의 곤란함이라고 서술되었다. 그런데 미강유 생산이 시작된 1932년은 일본의 농업 공황이 시작된 직후이고⁵⁶⁾ 미곡통제조사회가 설치되는 ⁵⁷⁾ 등 조선산 미곡 수출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점차 시작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미강유사업은 정미의 생산이 위축될 것에 대비한 보완적인 이익 창출 수단이었다.

창고업으로는, 상당히 차금을 하여 창고를 건설하고 이곳에서 벼의 저장과 판매를 진행하였다.⁵⁸⁾ 그리고 가토정미소의 이효건, 이종섭, 노기원은 모두 가토정미소의 중역과 동시에 진남포창고의 이사를 지내고 있었다.⁵⁹⁾ 세 명이 가토정미소에서 근무한 시기인 1920년대에는 미곡업자들이 보관 창고에 관심

53) 경성제국대학, <南浦加藤精米所が製油工場を建設>, 『신문체질』, 경성: 경성제국대학, 1935., p.232.

54) 加藤八千代, 위의 책, 1978, pp.206-207.

55) 경성제국대학, <南浦加藤精米所が製油工場を建設>, 앞의 책, p.232.

56) 김선미, 「1930년대 미곡정책과 식민지주제의 전개」, 『역사와 세계』 18, 1994, p.4. 1930년 농업공황이 시작되었다.

57) 『매일신보』, 1932.11.10., 1면 10단, <米穀統制調査會 官制今日公布>. 미곡통제조사회는 1932년 조직되었다.

58)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120.

59)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録』, (192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회사조합자료, <鎮南浦倉庫(株)>. : 中村資郎, 앞의 책, 1923., p.100.

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⁶⁰⁾ 이들 입장에서는 식민본국의 시장에서 조선미가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을 목적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건조 및 보관이 가능한 미곡창고의 필요성이 있었다.⁶¹⁾ 그 정도로 저장 문제가 대두되었으므로 진남포창고에 소속된 이효건, 이종섭, 노기원이 가토정미소에 입사하였다는 것은 진남포창고와의 협력체계 형성을 통하여 이 정미소의 원활한 미곡 저장 공정을 도모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농장 경영으로는, 그는 1936년 4월 가토농장본부(加藤農場本部)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황해도 안악·재령·장연, 강원도 철원, 경기도 김포·용인, 전라남도 영광 등 전국 곳곳에 농장을 설치하여 경영하였다. 전기에서는 농장 본부의 신설에 대해 “농부가 벼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소비자를 생각하듯이, 정미업자도 스스로 농장을 경영하여 쌀농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⁶²⁾ 마침 1930년 일본이 농업공황을 맞아 지가가 하락하고 있었기에⁶³⁾, 조선의 낮은 지가와 높은 토지수익률에 주목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지이 간타로⁶⁴⁾처럼, 저가에 농장을 구입하여 경영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벼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듯하다.

한편 가토는 1936년 이래로 당국의 미곡 관련 통제가 엄격해지자 만주에 농장을 마련하였다. 그는 다테 준노스케(伊達順之助)의 도움을 받아 만주에 가서 1937년 4월 12일 만주산업(滿洲産業)(주)을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 회사를 통하여 자본금 100만 원으로 개간, 농업, 농산물의 가공매매 및 위탁판매, 척식에 요구되는 수리사업 등⁶⁵⁾을 행하였다. 또 그는 만주국과 연계하여 수전 개척을 시도하였다. 그는 중국정부의 요인이었던 가씨(可氏)를 만나 그로부터 잉커우 근처의 약 8천 정보의 갈대밭 부지를 매수하였고 만주국의 장징후이(張景惠) 총리와 면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주국은 민간인에게

60) 이해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의 설립과 확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19.

61) 『동아일보』, 1924.08.08., 4면 1단, 〈玄米賣買 米改良의 捷徑〉.

62)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242, pp.258-259.

63) 김선미, 앞의 논문, p.32.

64) 이규수, 「후지이 간타로(藤井寛太郎)의 한국진출과 농장경영」, 『대동문화연구』 49, 2005, p.15.

65) 中村資郎, 위의 책, 1939, p.310.

허가를 주지 않아 그는 협상에 실패하였다. 결국 만주개척총국장이었던 이나 가키 마사오(稲垣征夫)와 계속해서 교섭하였음에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렇게 가토정미소는 창립 8년 만에 다음의 <표 3>과 같이 성장하였다. 창립연도인 1918년에 자본금 51,000원으로 출발하였다가 1920년에는 자본금이 30만 원으로, 1924년에는 57만 원으로, 1925년에는 100만 원으로 증자하였다. 이는 사원으로 사이토상점 시절부터 가토와 함께 근무하며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마쓰모토 지로키치(松山次郎吉)가 사망하자, 가토가 그의 유언을 수용하여 지로키치의 유산을 증자에 충당하여 이루어진 것이다.⁶⁶⁾

<표 3> 가토 경영 회사의 자본금 추이⁶⁷⁾

연도	자본금			가토정미소의 사장 지분	가토정미소의 주주(액수)
	가토정미 소	가토식산 (주)	조선정미 (주)		합계
1918	51,000	-	-	-	-
1920	300,000	-	-	-	-
1921	300,000	-	-	가토 헤이타로 157,500	이효건(李孝健) 15,000 노기원(魯起元) 30,000 오니가시라 스스무(鬼頭進) 30,000 마쓰모토 지로키치(松本次郎吉) 37,500 황극지(黃克志) 15,000 야마우치 킨사쿠(山内金作) 7,500 이종섭(李種燮) 7,500 142,500
1923	300,000	-	-	가토 헤이타로 180,000	노기원 15,000 오니가시라 스스무 30,000 마쓰모토 지로키치 45,000 야마우치 킨사쿠 7,500 이종섭 7,500 황극지 15,000 120,000
1924	570,000	-	-	-	-
1925	1,000,000	-	-	가토 헤이타로 480,000	야마우치 킨사쿠 189,000 노기원 50,000 오니가시라 공업(鬼頭工業)(주) 93,000 마쓰모토 쇼우지(松本庄治) 45,000 마쓰모토 시루(松本ツル) 40,000 황극지 27,000

66) 加藤八千代, 위의 책, 1978., pp.146-147.

					이종섭 23,000 야마우치 마쓰헤이(山内松平) 23,000 스즈키 타메오(鈴木爲男) 19,000 스즈키 신노스케(鈴木新之助) 11,000 520,000
1926	300,000	-	-	-	-
1927	300,000	-	-	가토 헤이타로 150,000	야마우치 마쓰헤이 30,000 야마우치 긴페이(山内金平) 30,000 가토 신페이(加藤新平) 30,000 가토 산페이(加藤三平) 30,000 가토 치요(加藤千代) 30,000 150,000
1929	300,000	-	-	가토 헤이타로 150,000	야마우치 마쓰헤이 30,000 야마우치 긴페이 30,000 가토 신페이 30,000 가토 산페이 30,000 가토 치요 30,000 150,000
1931	300,000	-	-	가토 헤이타로 150,000	야마우치 마쓰헤이 30,000 야마우치 긴페이 30,000 가토 신페이 30,000 가토 산페이 30,000 가토 치요 30,000 150,000
1933	300,000	-	-	가토 헤이타로 150,000	야마우치 마쓰헤이 60,000 가토 신페이 30,000 가토 산페이 30,000 가토 치요 30,000 150,000

그런데 1927년에는 30만 원으로 감자하였는데, 이는 1925년 7월에 발생하기 시작한 대홍수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였던 것⁶⁸⁾으로 보아 이것의 영향을 받아 적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1937년 60만원으로 다시

67) 中村資郎, 앞의 책, 1923, p.193.; 中村資郎, 앞의 책, 1927, p.176.; 中村資郎, 앞의 책, 1931, p.195.; 中村資郎, 앞의 책, 1933, p.184.; 中村資郎, 앞의 책, 1937, p.218.; 中村資郎, 앞의 책, 1939, p.246.; 中村資郎, 앞의 책, p.260.; 鎌田白堂, 『朝鮮の人物と事業.第1輯, 湖南篇』, 京城: 實業之朝鮮社出版部, 1936, p.188.

68) 『조선신문』, 1925.07.20., 1면 5단, <今次の洪水で農作物の被害>.: 『경성일보』, 1925.07.26., 5면 3단, <忠北의 洪水被害 道路만 損害가 約百萬圓 農作被害도 亦不少>.: 『시대일보』, 1925.08.18., 2면 11단, <各地水害情報一束>.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원 지분에 있어 <표 3>에서 1925년 이후로 한국인 중역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을축년 홍수 이후의 가토정미소의 침체 상황을 보고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가토정미소는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공황으로 매출액과 수익의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본금의 변화가 없던 점에서 추정된다. 또 1930년에 가토정미소에서 조선인 근로자들에 의한 파업이 빈번한 것도 한 방증이다. 대표적으로 이해 1월 인천공장에서 조선인 직공 300여 명에 의하여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는 동맹파업이 발생하였다.⁶⁹⁾ 3월에는 선미부(選米部) 여직공 160여 명에 의하여 동맹파업이 전개되었다.⁷⁰⁾ 이는 1929년 대공황으로 일본 정부가 통제를 하자 재조일본인 자본가들은 침체의 타파와 생산의 증식을 위하여 임금 인하, 노동강화 등의 부당한 조치들을 실시하였는데⁷¹⁾, 가토도 자신의 정미소가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받음에 따라 이러한 것을 하여 벌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가토정미소는 일제의 만주침략에 힘입어 희생하였다. 1933년 10월 기준으로 가토정미소에서 미곡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매일 약 1만 석의 미곡을 일본 오사카로 수출하는 등 회복의 기미가 보였다.⁷²⁾ 1934년 1월에는 군산공장에 화력건조기를 설치하여 능률적인 공정을 하려는⁷³⁾ 등 희생의 시도를 하였다. 이듬해에는 오사카에 일본정미제유(日本精米製油)(주)를, 도쿄(東京)에 소매점을 개설함으로써 일본으로도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였다.⁷⁴⁾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1935년 12월 22일 가토정미소의 각 지점공장들과 일본정미제유(주)를 제외하고 창고회사 등 기타 국내회사들과만 합병하여 가토식산(加藤殖産)(주)을 창립하였다.⁷⁵⁾ 이후 기존에 아라이 하츠타로(荒井初

69) 『중외일보』, 1930.01.13., 2면 4단, <仁川加藤精米所三百男女工盟 임금인상대우개선등 九個要求條件提出>; 경성제국대학, <仁川加藤精米所 三百男女工盟罷>, 앞의 책, p.43.

70) 경성제국대학, <鎭南浦加藤精米所 女職工突然盟罷>, 앞의 책, p.230.

71) 김영근, 「세계 대공황기 노동력의 성격과 파업투쟁」, 『역사와 현실』 11, 한국역사연구회, 1994.

72) 『동아일보』, 1933.10.31., 4면 2단, <鎭南浦方面新米出廻旺盛>.

73) 경성제국대학, <加藤精米所で火力乾燥機>, 앞의 책, p.27.

74) 경성제국대학, <加藤精米所 東京で小賣店開設>, 앞의 책, p.476.

太郎)가 경영하고 있었던 조선정미(주)와 1936년 합병하여 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후 통합된 회사의 명칭을 ‘가토식산(주)’에서 ‘조선정미(주)’로 개칭하였다.⁷⁶⁾

〈표 4〉 가토정미소·가토식산(주)·조선정미(주)의
자본금과 주주 현황(1935~1937)⁷⁷⁾

연도	자본금		가토정미소의 주주(액수)	조선정미(주)의 주주(액수)	비고
	가토 정미소	가토식산 (조선정미) (주)			
1935	300,000	1,000,000	가토 헤이타로 150,000 야마우치 마쓰헤이 60,000 가토 신편이 30,000 가토 산폐이 30,000 가토 치요 30,000 (각 액수는 미상)	-	-
1936	-	-	-	-	1936년 가토식 산(주)에서 조 선정미(주)로 사명 변경
1937	600,000	5,000,000 (1주당 50원)	가토 헤이타로 450,000 야마우치 마쓰헤이 60,000 가토 신편이 30,000 가토 산폐이 30,000 가토 치요 30,000 (각 액수는 미상)	가토 헤이타로 50,650(2,532,500) 야마우치 마쓰헤이 13,245(662,250) 아리마 준지 11,498(574,900) 오가사와라 요시오 6,380(319,000) 덴니치 코이치 2,710(135,500) 산노베 모리조 1,754(87,700) 기타 소액주주 13,763(688,150)	-

75) 中村資郎, 앞의 책, 1937, p.225.

76)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회사조합자료, 〈朝鮮精米(株)〉.; 『경성일보』, 1937.10.06., 5면 7단, 〈朝鮮精米會社論山精米合併〉.; 『조선신문』, 1936.10.27., 4면 1단, 〈朝鮮의三大精米, 愈愈合同成立す, 内地大都市に販賣所を新設, 會長に加藤氏就任〉.

77) 中村資郎, 앞의 책, 1937. p.218, pp.225-226.

이 회사는 경성부 화천정 1-6에 본점을 두었고, 진남포, 해주, 인천, 부산, 군산 등에 지점을 두었으며⁷⁸⁾, 자본금은 500만 원이었다. 사장은 가토, 전무 이사는 오가사와라 요시오(小笠原儀雄), 이사는 나카가와 사토시(中川哲)·산노베 모리조(三戸守三)·하라 마타요시(原又吉)·야마우치 마쓰헤이(山内松平), 감사는 아리마 준지(有馬順二)·가토 신페이(加藤新平)였다. 경성지점장은 노다 히로시(野田博), 부산지점장은 산노베 모리조, 군산지점장은 타카하라 (高原仙太郎), 인천지점장은 야마우치 마쓰헤이, 해주지점장은 후리키치 추이치(振吉忠一), 진남포지점장은 나카가와 사토시였다.⁷⁹⁾ 정미업 및 착각유업, 미·잡곡의 매매중개 및 위탁영업, 운송 및 창고업, 금융업 등이 주요 업종이었다.⁸⁰⁾ 1939년 11월 기준 연간 백미 000만석, 강유 1,980석을 생산하였다.⁸¹⁾

가토는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인천곡물협회장, 인천정미조합장, 인천부세진흥회 부회장 등으로서 정치·사회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인천곡물협회 활동으로는, 그는 1928년 1월 이 단체의 회장에 취임하였다.⁸²⁾ 이 단체는 인천 지역의 곡물상들이 곡물무역의 발달을 계획하고 통상을 통한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회장으로서는 인천의 곡물업자들을 통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⁸³⁾ 취임을 전후로 해서는 인천정미조합장으로도 선임되었다.⁸⁴⁾ 그는 이 직책으로서는 곡물 검사의 완화에 관하여 당국에 진정하는⁸⁵⁾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활동을 그가 한 것은, 협회장이라는 직책에 올라 미곡 무역에 관한 자신의 이권이 달린 문제의 해결을 당국과의 협상 등을 통하여 한 것으로 생각된다.

78) 『경성일보』, 1937.10.06., 5면 7단, 〈朝鮮精米會社論山精米合併〉.

79) 中村資郎, 앞의 책, 1937. p.226.

80) 中村資郎, 앞의 책, 1939. pp.252-253.

81) 『경성일보』, 1939.11.12., 6면 3단, 〈搖ぎなき斯界の王者朝鮮精米株式會社, 技術の優秀と經營の合理〉.

82) 『매일신보』 6면 2단, 1929.01.19., 〈仁川穀物協會 役員全部重任〉.

83) 민중시론사조선공로자명감간행회, 앞의 책, p.823.

84) 『조선신문』, 3면 9단, 1928.12.02., 〈加藤家慶事(仁川)〉.

85) 『매일신보』, 4면 8단, 1933.12.06., 〈仁川の精米業者 検査緩和를 陳情 検査苛酷은 生活의 脅成가 된다 組合에서 對策講究〉.

그는 인천곡물협회장이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인천항 하역비 인하운동(1928년)⁸⁶⁾, 정미과세의 인하에 관한 인천부윤 회동(1929년 2월)⁸⁷⁾, 인천-해주 간 항로보조금 문제에 대한 진정(1929년 3월)⁸⁸⁾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경성 주식현물취인시장과 인천미두취인소의 합병을 통한 취인소의 경성 이전을, 인천미두취인소는 인천 고유의 것으로 이 지역의 진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반대하였다.⁸⁹⁾ 이어 1920년대 초반부터 인천 지역에서 거론되어온 장래 인천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기고를 한 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천항이 다른 항구보다 설비가 충실하고 하역이 용이함에도 다른 항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지나치고, 장항항으로의 미곡 흡수로 인천 상권이 축소됨을 밝혔다.⁹⁰⁾ 이는 인천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유통구조를 장악하기 위한 것과 관련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식민 당국의 조선미의 차별대우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고⁹¹⁾, 조선총독부와 조선미의 수출 조절에 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⁹²⁾

인천곡물협회장으로서의 이러한 가토의 활동이나 견해는 표면적으로 인천 지역 자체와 이곳의 발전을 내세운 것이다. 가토를 비롯하여 이 지역의 일본인 정미업자와 미곡무역업자의 입장에서는 인천 상권에는 철도가 지나지 않아 안정적인 상권의 유지를 위하여 인천 연안을 거치는 항로의 이권이 확보되는 것과 지역 수입의 원천에 다름없었던 인천미두취인소의 존립은 중요하다는 점도 존재한다.⁹³⁾ 그런데 이러한 가토의 활동과 견해 피력 이후 1931년 5월 조선취인소령의 공포에 의하여 인천미두취인소는 경성으로 이전되지 않

86) 『매일신보』, 4면 3단, 1928.06.07., 〈仁川埠頭荷役費 引下運動猛烈 仁川穀協의 聲明書〉.

87) 『조선신문』, 4면 2단, 1929.02.28., 〈精米課稅引下要望, 仁川當業者の府尹訪問〉.

88) 『조선신문』, 3면 1단, 1929.03.16., 〈仁川海州間航路補助金問題仁川穀物協會より逓信局へ陳情書を提出〉.

89) 『조선신문』, 3면 5단, 1929.05.01., 〈合併は賛成移轉は反對, 加藤穀協會長の態度〉.

90) 古川文道, 「大仁川港の繁榮策」, 『仁川の緊要問題』, 京城: 朝鮮新聞社, 1932, pp.188-189.

91) 『중앙일보』, 1932.12.20., 3면 1단, 〈인천부민대회 긴장리폐회, 미차별대우 적극적반대, 결의문도 작성〉.

92) 『조선신문』, 1930.03.02., 4면 1단, 〈朝鮮米輸出調節懇談會, 來る五,六の兩日總督府で開催〉.

93) 문영주, 「20세기 전반기 인천 지역경제와 식민지 근대성」, 『인천학연구』 10, 2009. p.18.

고 인천에 존치되었다.⁹⁴⁾ 이는 결과적으로 식민당국의 정책 실행에 가토가 영향력을 미친 것이고, 인천곡물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지니고 한 그의 행적을 식민지배로의 관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역적인 차원과는 별개로 미주취인소의 운영은 대공황으로 일본정부가 미국 통제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조선미의 가격·수급에 대한 조절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⁹⁵⁾

또한 그는 인천부세진흥회에서 활동하였고, 1936년 7월 이 단체의 부회장이 되었다.⁹⁶⁾ 그는 이 직책을 지내면서 인천관측소의 경성 이전 반대 운동⁹⁷⁾, 전신전화 요금 인하 운동⁹⁸⁾, 조선-중국 간 항로의 확보 및 경인운하 건설 촉구 활동⁹⁹⁾ 등 인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들을 하였다. 가토가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인천의 개발이라는 공익성 사업 추진에 조선인 지역민을 협력세력으로서 포섭하여 도시계획으로 인한 지가의 상승, 원활한 미국의 유통 등을 도모하려 한 것¹⁰⁰⁾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94) 『조선신문』, 1931.05.08., 2면 1단, 〈けふ正式決定する朝鮮取引所令, 全文六十九條より成り仁取移轉愈不可能〉.

95) 김민화, 「1930년대 부산미국취인소의 설립과 활동」, 『지역과 역사』 42, 2018, p.4.

96) 『조선신문』, 1936.07.15., 4면 3단, 〈府勢振興會總會を開く, 副會頭に加藤氏〉.

97) 『경성일보』, 1936.08.12., 4면 6단, 〈觀測所存續を要望, 仁川府勢振興會の委員一行學務局長に陳情す〉.

98) 『매일신보』, 1938.11.08., 4면 5단, 〈京仁間通話料金の大幅引下를 要望 仁川府勢振興會에서〉.

99) 『조선신문』, 1940.07.18., 5면 3단, 〈京仁運河の急施問題, 仁川府勢振興會起つ〉.

100) 류창호, 「1920~30년대 ‘대인천’ 건설 운동과 지역주의 - 인천부세진흥회와 일본인 유력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128, 2023, p.40.

IV. 중일전쟁 지원과 ‘가토 그룹’으로의 견인

가토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생 후 일본군에 군용미를 공급하는 등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협력함으로써 수익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그는 중일전쟁 시기에 미곡 등의 교역에 관하여 당국과 협상을 벌이기도 하였다. 1937년 10월 3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화물의 수송력 증진에 관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세관, 철도국 등의 관계자들과도 대책을 협의하였다.¹⁰¹⁾ 10월 21일에는 그는 이른바 ‘내선만(일본-조선-만주)경제 블록’의 강화 긴밀을 목적으로 이해 11월 15일부터 실시된 직통화물운임제를 중심으로 이른바 ‘경제국방’에 관하여 식민당국과 대책을 협의하였다.¹⁰²⁾ 그가 이것을 한 것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통치의 강령으로서 이른바 만선일여(滿鮮日如)를 추진하여¹⁰³⁾ 만주국과 경제적 협력을 시도하자¹⁰⁴⁾ 이로 조성된 재조일본인들의 환영적인 분위기¹⁰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점에서 선만 경제 블록 관련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회사의 원활한 미곡 거래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식민 당국과 미곡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도 시도하였다. 1939년 11월 미곡의 배급 통제를 피하려 조선총독부가 조직한 조선미곡시장(朝鮮米穀市場)(주)에 주주로서 관여하였다.¹⁰⁶⁾ 이어 1940년 8월에는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제2회 임시미곡대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으로서 조선산 미곡에 관한 대

101) 『조선신문』, 1937.10.03., 2면 3단, 〈出穀期を控えて仁川の生業報國, 貨物輸送懇談會開催〉.

102) 『매일신보』, 1937.10.21., 6면 4단, 〈鮮滿經濟畧력 緊密策協議〉.

103) 『경성일보』, 1937.01.01., 2면 6단, 〈“鮮滿一如”南朝鮮總督の新年試筆〉.

104)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와 만주국 관동사령관 우에다 겐키치(植田謙吉) 간의 투면회담(圖門會談)에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경제적 협력에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경성일보』, 1937.04.22., 3면 5단, 「着着築かれ行く“鮮滿一如”の金字塔, 既に十四項目は實現」.)

105) 임성모,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 '日滿一體'와 '鮮滿一如'의 갈등」, 『역사학보』 201, 2009, p.31.

106) 『매일신보』, 1939.11.26., 6면 5단, 〈朝鮮米穀會社 創立總會完了 社長에 矢島杉造氏-常務重役陣決定〉.;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278.

책을 논의하였다. 그도 여기서 총독부의 항구적인 미곡정책의 수립을 논하였다.¹⁰⁷⁾

한편 가토는 다액의 국채 진행을 통하여 국방헌금 활동도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5〉 중일전쟁·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가토 헤이타로의 국방헌금 활동¹⁰⁸⁾

일시	헌납 대상	활동
1937.9	일본군	항공기공납비 15,000원 헌금 ¹⁰⁹⁾
1939.10	일본 해군	병기 '망위경(望違鏡)' 헌납 ¹¹⁰⁾
1941.11	일본 육군·해군	군용기 '애국기' 각각 1대 헌납 ¹¹¹⁾
1942.4	일본군	9군신현창금 1천 원 헌금 ¹¹²⁾
1942.10	일본 육군	위문금 150원 헌금 ¹¹³⁾
1942.11	일본 육군	군용기 '조선정미호' 1대 헌납 ¹¹⁴⁾
1943.5	일본군 원사 야마모토(山元)	추모금 1천 원 헌금 ¹¹⁵⁾
1943.8	일본 육군·해군	홀병금 각각 5천 원 헌금 ¹¹⁶⁾
1943.9	일본 해군무관부	700마력의 증기기관 1대 헌납 ¹¹⁷⁾

107) 『경성일보』, 1940.08.03., 2면 1단, 〈機構を強化擴充臨時米調委員會五日より三日間開催〉; 『동아일보』, 1940.08.04., 2면 3단, 〈米穀對策委員會〉,

108) 『조선신문』, 1937.09.25., 4면 5단, 〈獻金は赤誠をこめて, 加藤平太郎氏談〉; 『매일신보』, 1939.10.16., 2면 8단, 〈宛然・愛國展 - 報國號兵器 獻納式 盛大〉; 『매일신보』, 1941.11.17., 2면 1단, 〈愛國機 二臺-朝鮮精米에서 獻納〉; 『京城日報』, 1942.04.10., 3면 5단, 〈本社寄託獻金八日扱ひ〉; 『경성일보』, 1942.10.01., 2면 7단, 〈本社寄託獻金(廿九日迄扱ひ)〉; 『매일신보』, 1942.11.12., 3면 9단, 〈京畿道民 赤誠의 結晶 愛國의 銀翼五六機 十七日練兵場에서 盛大한 命名式 - 命名될 愛國機〉; 『경성일보』, 1943.05.23., 3면 5단, 〈敬申の獻金〉; 『매일신보』, 1943.08.12., 4면 4단, 〈仁川加藤氏金一萬圓獻〉; 『매일신보』, 1943.09.17., 2면 6단, 〈蒸氣機關을 獻納 朝鮮精米에서 海軍에〉.

109) 『조선신문』, 1937.09.25., 4면 5단, 〈獻金は赤誠をこめて, 加藤平太郎氏談〉.

110) 『매일신보』, 1939.10.16., 2면 8단, 〈宛然・愛國展 - 報國號兵器 獻納式 盛大〉.

111) 『매일신보』, 1941.11.17., 2면 1단, 〈愛國機 二臺-朝鮮精米에서 獻納〉.

112) 『경성일보』, 1942.04.10., 3면 5단, 〈本社寄託獻金八日扱ひ〉.

113) 『경성일보』, 1942.10.01., 2면 7단, 〈本社寄託獻金(廿九日迄扱ひ)〉.

114) 『매일신보』, 1942.11.12., 3면 9단, 〈京畿道民 赤誠의 結晶 愛國의 銀翼五六機 十七日練兵場에서 盛大한 命名式 - 命名될 愛國機〉.

115) 『경성일보』, 1943.05.23., 3면 5단, 〈敬申の獻金〉.

116) 『매일신보』, 1943.08.12., 4면 4단, 〈仁川加藤氏金一萬圓獻〉.

117) 『매일신보』, 1943.09.17., 2면 6단, 〈蒸氣機關을 獻納 朝鮮精米에서 海軍에〉.

〈표 5〉에 따르면 가토는 주로 항공기 헌납과 병사 위문 헌금을 여러 차례 제공하였다. 전시체제기에 가토가 벌인 이러한 일련의 협력 행보에 대하여, 전시체제기 초반 언론에서의 그의 발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일체의 헌금은 국가의 비상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¹¹⁸⁾ 그리고 그의 전기에서 그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자랑하였다. 또 회사의 서무였던 고베 덴파치(神戸伝八)의 회고에는 이 당시 회사의 중역 중 가토만 유일하게 각반을 차며 적극적으로 당국의 방침에 협력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¹¹⁹⁾

그런데 전시체제기 가토의 국방 헌납과 같은 협력적 행적은 전쟁에 편승하려던 의도를 국가에 헌신하려는 정신으로 미화한 점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전시체제기 자신의 지원활동이 전쟁특수를 이용한 것이다. 그가 국방헌납 활동을 하였던 시기에는 일본의 미곡통제 강화로 조선정미(주)의 정미업 경영이 기존보다 힘들어졌다. 따라서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전시에 편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도 그의 행보가 일본의 전시 정책의 집행으로 귀결된 점에서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토는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일본군의 각 사단들의 미곡 매입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미곡도 통제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¹²⁰⁾, 정미공업, 미곡의 수입, 수출, 벼의 매수, 경성 내에서의 백미 시판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¹²¹⁾ 따라서 그는 조선에서는 정미업 외에 철강업, 미강유업 등을, 중국, 일본 등에서는 농장 운영이나 정미업 등을 시도하였다.

118) 『조선신문』, 1937.09.25., 4면 5단, 〈獻金は赤誠をこめて, 加藤平太郎氏談〉.

119)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327.

120) 1939년 조선미의 수입이 정지되고 미곡배급통제법이 공포되어 미곡의 수출이 조절되게 되었다.(紅葉山人, 「齊藤久太郎と加藤平太郎」, 『조선공론』 314호, 1939, p.29.)

121) 저자 미상, 「加藤平太郎氏の自家用飛行機」, 『조선공론』 339호, 1941, p.52.

〈표 6〉 가토정미소와 조선정미(주)의 자본금과 주주 현황(1937~1942)¹²²⁾

연도	자본금		가토정미소의 주주(액수)	조선정미(주)의 주주(액수)
	가토정미소	조선정미(주) (주당 액수)		
1937	600,000원	5,000,000원 (1주당 50원)	가토 헤이타로 450,000 야마우치 마쓰헤이 60,000 가토 신편이 30,000 가토 산페이 30,000 가토 치요 30,000 하라 마타요시(주수 미상) (각 액수는 미상)	가토 헤이타로 50,650(2,532,500) 야마우치 마쓰헤이 13,245(662,250) 아리마 준지 11,498(574,900) 오가사와라 요시오 6,380(319,000) 덴니치 코이치 2,710(135,500) 산노베 모리조 1,754(87,700) 기타 소액주주 13,763(688,150)
1939	600,000원	5,000,000원 (1주당 50원)	가토 헤이타로 450,000 야마우치 마쓰헤이 60,000 가토 신편이 30,000 가토 산페이 30,000 가토 치요 30,000 하라 마타요시(주수 미상) (각 액수는 미상)	가토정미소 33,988(1,699,400) 가토 헤이타로 29,792(1,489,600) 야마우치 마쓰헤이 13,255(662,750) 아리마 준지 6,384(319,200) 덴니치 코이치 2,777(138,850) 오가사와라 요시오 1,801(90,050) 산노베 모리조 1,704(85,200) 노다 히로시(野田博) 1,279(63,950) 기타 소액주주 9,020(451,000)
1941	600,000원	5,000,000원 (1주당 50원)	가토 헤이타로 450,000 야마우치 마쓰헤이 60,000 가토 신편이 30,000 가토 산페이 30,000 가토 치요 30,000 하라 마타요시(주수 미상) (각 액수는 미상)	가토정미소 33,988(1,699,400) 가토 헤이타로 29,792(1,489,600) 야마우치 마쓰헤이 13,255(662,750) 아리마 준지 6,384(319,200) 덴니치 코이치 2,777(138,850) 오가사와라 요시오 1,801(90,050) 산노베 모리조 1,704(85,200) 노다 히로시(野田博) 1,279(63,950) 기타 소액주주 9,020(451,000)
1942	600,000원	5,000,000원 (1주당 50원)	가토 헤이타로 450,000 야마우치 마쓰헤이 60,000	가토정미소 32,988(1,649,400) 가토 헤이타로 29,680(1,484,000)

122) 中村資郎, 위의 책, 1939, pp.246-247, pp.252-253.; 中村資郎, 위의 책, 1941, p.260, pp.265-266.;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회사조합자료, 〈加藤精米所(合資)〉.;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회사조합자료, 〈朝鮮精米(株)〉.

			가토 신페이 30,000 가토 산페이 30,000 가토 치요 30,000 하라 마타요시(주수 미상) (각 액수는 미상)	야마우치 마쓰헤이 13,255(662,750) 아리마 준지 6,298(314,900) 텐니치 코이치 2,777(138,850) 오가사와라 요시오 1,890(94,500) 산노베 모리조 1,666(83,300) 기타 소액주주 11,466(572,300)
--	--	--	---	---

가토는 중일전쟁 후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협력한 대가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먼저 정미업으로는, 가토 그룹은 조선정미(주)를 주축으로 방계회사로서 규슈정미(주), 일본정미제유(주), 마루이치정미(丸一精米)(주) 등이 있었다.¹²³⁾ 규슈정미(주)는 1938년 5월 가토가 일본 고쿠라(小倉)에 설립한 정미회사로, 주로 조선정미(주)에서 도정한 백미의 판매를 하였다.¹²⁴⁾ 마루이치정미(주)는 1938년 8월 인천에서 설립되어 정미업, 미곡 매매, 농장 경영 등을 주로 하였다.¹²⁵⁾ 이는 당국의 미곡 통제 강화로 조선에서는 정미업의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그 대안으로서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에 보듯이 1937년~1942년 기준으로 가토정미소와 조선정미(주)의 자본금은 각각 60만 원, 500만원이었는데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조선정미(주)는 1938년 기준 정미기 529대, 인접기 28대, 원동기 34대, 제유기 53대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백미 530만 석을 생산하였다.¹²⁶⁾ 종업원 수는 1935년 11월 기준 2,400명이었다.¹²⁷⁾

1939년 12월에는 가토가 조선 내의 미곡 통제로 인천공장의 일부를 중국 화북 지역으로 이전하려고¹²⁸⁾, 이곳에 군량성정곡(軍糧城精穀)(주)을 설립하였다. 관계 당국의 양해 하에 세워진 이 회사는 300마력의 정미기 32대를 가동시켜 연 백미 30만 석을 생산하며 정미소를 운영하고, 토지개량을 통하여 수전을 경영하려 하였다¹²⁹⁾. 그는 이 회사의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상당

123) 『경성일보』, 1938.05.25., 2면 7단, 〈九州精米創立〉.; 中村資郎, 위의 책, 1939., p.257.

124) 『경성일보』, 1938.05.25., 2면 7단, 〈九州精米創立〉.

125) 中村資郎, 위의 책, 1939., p.257.

126) 加藤八千代, 위의 책, 1978., p.272, 274.

127) 『매일신보』, 1935.11.20., 5면 5단, 〈朝鮮精米界王座加藤精米所〉.

128) 저자 미상, 「加藤平太郎氏の自家用飛行機」, 『조선공론』 339호, 1941, p.52.

한 실적을 거두었다.¹³⁰⁾ 이는 일본군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중일전쟁의 발발로 화북의 외부로부터 미곡의 수입이 어려워져 동아원 화북연락부(興亞院華北連絡部)가 화북 내 미곡 생산을 추진하여 일본인 농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토는 일본의 화북 병참기지화에 협조한 것으로 생각된다.¹³¹⁾

이어 가토는 오니구라 후쿠타로(鬼倉福太郎)와 함께 1941년 2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중국 하이난 섬을 비롯하여 홍콩, 태국 등을 시찰하여, 현지에서 쌀의 경작법, 정미공장의 설비 등을 보고 왔다.¹³²⁾ 이 시찰을 계기로 그는 식물유지가 조선의 것만으로 있지 않다면 태국미의 생겨로부터도 조선미와 대략 동일한 양의 착출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¹³³⁾ 이는 그가 전시 체제 하의 통제로 조선에서의 미강유 생산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태국산 미곡의 활용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토는 하이난에서 농장과 정미공장의 건설·운영을 시도하였다. 그는 하이난에 약 5만 정보의 수전을 개척하고자 하였다.¹³⁴⁾ 1943년에는 8개의 정미소를 설립하고 정미기 2대와 인접기 2대를 돌려 운영하였다. 그런데 인접기의 고장과 일본의 패전으로 중단되었다.¹³⁵⁾ 이처럼 그가 하이난에서 농장을 개척하고, 정미소를 경영한 것은, 일본이 하이난을 병참기지로 만드는 것¹³⁶⁾에 부응하여 이곳에 거주한 일본인을 지원하려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토는 미강유업을 발전시켰다. 그는 연구원 시마모토 츠루조(島本鶴造)와 교섭하여 일본정미제유(주)의 공장에 착출기를 설치하고 일본군으로부터

129) 『매일신보』, 1939.12.06., 6면 7단, 「朝鮮精米가 北地에 進出- 水田도 經營」.

130) 저자 미상, 「加藤平太郎氏の自家用飛行機」, 『조선공론』 339호, 1941, p.52.

131) 강성신, 「中日戰爭時期 日本의 華北 現地自活主義: 天津지역 米穀의 생산과 통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26, 39.

132) 『경성일보』, 1941.05.04., 4면 4단, 〈加藤氏報告會〉.

133) 加藤平太郎, 「農作機具と米穀操作」, 『조선공론』 342호, 1941, p.38.

134) 『경성일보』, 1941.02.02., 2면 6단, 〈海南島へ虹の抱負, 加藤平太郎氏は語る〉.

135)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318.

136) 신영숙, 유혜정, 김미정, 「해남도 일본군 ‘성노예’ 실태 조사 연구 보고」, 『여성연구논총』, 17, 2002, p.4.

터 겨와 벤졸을 공급받아 미강유를 생산하였다. 이어 그는 1937년 조선정미(주)에서 생산한 미강유를 미국에 수출하기도 하였다.¹³⁷⁾ 또한 1939년 9월, 가토는 제3국으로의 미강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제유회사(朝鮮製油會社)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의 상담역을 맡은 그는 부산의 공장을 가동하여 연 30만 캔의 강유를 생산하였다.¹³⁸⁾ 이러한 중일전쟁 시기의 가토의 강유업 진행은, 중일전쟁 발발 이전과 유사하게 미곡 통제 상황으로 인한 정미업 진행 위축에 대한 대체적인 작업이며, 일본군의 협조를 받는 대가로 군에 미강유 제공을 통하여 군수물자 공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일전쟁 이후 가토는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가토 그룹’으로 견인하고자 하였다. 중공업으로는, 그는 1937년 6월 14일 조선제강소(朝鮮製鋼所)를 창립하고 취체역으로 활동하였다.¹³⁹⁾ 특수주강·합금철·단강의 제조·판매, 광산·토목·시멘트 및 화학 여러 기계의 제조·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 이 회사는 자본금이 1939년 85,000원이었다가 1941~42년에는 200만 원에 달하였다.¹⁴⁰⁾ 이어 그는 1938년 9월에는 조선이연금속(朝鮮理研金屬)(주)의 설립에 참여하였다.¹⁴¹⁾ 자본금이 1,500만 원에 달한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철강·알루미늄·마그네슘·기타 금속 및 각종 화학공업품의 제조·판매 등이었다.¹⁴²⁾

이렇게 가토가 철강 업종에 뛰어든 된 것은, 중일전쟁의 발발로 일본 본토에서 철강의 공급이 부족해져 철강의 증산이 요청된 상황에¹⁴³⁾ 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일전쟁 시기 그는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는 곡물업자에서 벗어나 미강유

137) 加藤八千代, 위의 책, 1978., pp.278-279, 282.

138) 『조선신문』, 1939.09.14., 4면 4단, 〈朝鮮製油創立社長齋藤久太郎氏〉.

139) 『조선신문』, 1937.07.01., 4면 1단, 〈いよいよ仁川に朝鮮製鋼所工場, 資本金百萬圓の株式組織, 順次一千萬圓に増資〉.

140) 中村資郎, 위의 책, 1939. p.177.; 中村資郎, 위의 책, 1941, p.165.;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회사조합자료, 〈朝鮮製鋼所(株)〉.

141) 『매일신보』, 1938.09.28., 〈朝鮮理研金屬創立 二十三日東京에서〉.

142) 中村資郎, 위의 책, 1939, p.188.

143) 최우영, 「전시기일본의 철강배금통제정책의 전개」, 『일본연구』 37, 2008, p.4-5.; 『경성일보』, 1936.12.06., 3면 5단, 「鐵鋼の供給不足, 朝鮮工業界も關心, 機械器具の續騰傾向」.

를 생산한 조선제유회사 등의 등의 방계회사를 거느리고, 철강업까지 운영하는 그룹의 지배인으로까지 성장하였다. 앞의 <표 1>에서 드러나듯이, 조선정미(주)와 조선제강소 등 회사의 자본금은 무려 700만 원 이상이었다. 또 1943년 무렵 가토가 자가용 비행기를 운영한 것¹⁴⁴⁾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태평양전쟁의 발발 이후 일본의 전황이 악화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토는 총력전 체제에서 일본의 승전 등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조선정미(주)의 정미업, 미강유 착유 작업을 전부 중지하였고, 1942년 모든 공장의 용도품을 인천공장에 집결하였으며 일본 해군에 부산공장을 임대해 주었다. 또한 그는 1942년 9월 진남포에 두부를 제조하는 조선냉동가공(朝鮮冷凍加工)(주)을 설립하여 군사산업에 협력하였다.¹⁴⁵⁾ 이어 1943년 7월 그는 건조야채 및 기타 식료품의 저장, 가공을 주된 업무로 삼는 조선저장식량회사(朝鮮貯藏食糧會社)의 취체역이 되어¹⁴⁶⁾ 군에 어류, 청과, 야채 등의 공급하였다.¹⁴⁷⁾ 가토가 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것은 정미업 경영의 대안 중의 일부이고 전황의 심화에 따라 일제의 식량 확보 문제가 긴밀해지는 상황을 이용하였을 것으로도 생각되나 당시 일제의 방위식량 정책에 대한 동조로 귀결되었다.

이어 1943년 8월 식량관리령이 제정되고, 동년 10월 조선총독부가 식량통제기구로서 조선식량영단(朝鮮食糧營團)을 출범시키자¹⁴⁸⁾, 가토는 경성에 있었던 본사의 공장과 지방의 주요 공장을 영단에 임대해주고, 조선정미(주)의 근로자들을 영단의 산하에 전속하였다.¹⁴⁹⁾ 이는 패색이 짙어져 가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미곡에 대한 유통을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식량영단에서 전담하려 하자 가토가 따른 것이다.

144) 저자 미상, 「加藤平太郎氏の自家用飛行機」, 『조선공론』 339호, 1941, p.52.

145) 『조선총독부관보』 1943.08.31., 부령 4975호.

146) 『경성일보』, 1943.07.24., 2면 1단, <貯藏食糧會社創立, 乾燥野菜製造工場着手>.

147) 『경성일보』, 1943.05.15., 2면 5단, <防衛食糧の確保, 貯藏食糧會社を新設>. 조선저장식량회사는 전시하의 식량사업과 방위를 위하여 저장식량을 확보하려던 목적에서 1943년 5월 14일 설립되었다. 창립 당시의 자본금은 300만 원이었고 어류, 청과, 야채 등 식량의 저온 건조 및 군수용 제공이 주요 업무였다.

148) 이송순, 『일제하 전시 농업정책과 농촌 경제』, 서울: 선인, 2008, p.166.

149)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78., p.283, 326.

가토는 조선식량영단의 평의원 등으로 조선 내의 식량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활약하였다. 그는 1944년 1월 25일 조선식량영단의 평의원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¹⁵⁰⁾ 그리고 같은 해 5월에는 조선총독부 산하 기업준비위원회 양곡정비부회의 임시위원에 임명되어, 총독부 농상공과 식량영단의 연구에도 관여하였다.¹⁵¹⁾ 이러한 그의 영단 활동은, 전시체제에 조선정미(주)의 경영이 곤란해지자 조선식량영단이라는 관여하여 자신이 보유한 회사와 자본을 지키려던 목적으로 짐작된다.

일본의 패망 후 가토는 미군정에 의하여 귀국하게 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한 이후, 이제 귀국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일본인들의 안정적인 귀국을 도와주는 단체인 인천일본인세화회(仁川日本人世話會)의 회장에 추대되어, 인천 지역 일본인들의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¹⁵²⁾ 이듬해 1월 15일 미군정의 명령으로 가족을 데리고 귀국하였다.

이후 가토는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재기하려 하였다. 그는 규슈정미(주)의 재건을, 그 이전에 태평양전쟁으로 공출된 착유기 5대를 1947년에 반환받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 회사를 150만(1951년), 300만(1952년), 600만(1960년), 3000만 엔(1962년)까지 증자시켜 재건에 성공하였다. 또한 그는 구마모토정곡유지공업(熊本精穀油脂工業)(1948년), 히로시마제유(広島製油)(1963년), 오오무라제유(大村製油)(1964년) 등 다수의 착유회사들을 설립·경영하였다. 1961년 8월에는 일본 농림성으로부터 유지업계 공로자로서 표창받기도 하였다. 그러다 1968년 11월 16일 일본 사가현(佐賀県) 사가군(佐賀郡) 후지초(富士町) 후루유(古湯)에서 사망하였다.¹⁵³⁾

150) 『경성일보』, 1944.01.25., 2면 10단, 〈食糧營團評議員任命〉.

151) 『매일신보』, 1944.05.20., 2면 9단, 〈糧穀整備部會 臨時委員委囑〉.

152) 『경성일보』, 1945.08.29., 2면 3단, 〈力強く發足, 仁川内地人世話會〉.

153) 加藤八千代, 앞의 책, 1991., p.134, pp.147-148.

V. 맺음말

가토 헤이타로(加藤平太郎)는 일본 야마구치 쿠마게군에서 출생하여 해상 운송 도매업에 종사한 가문 하에 성장하였다. 그러다 고아가 되어 해상운송 중개업을 한 사이토 가문에 입적되어 이 가문이 소유한 텐진호의 선원으로 근무하다 선박의 좌초로 조선에 상륙하여 1895년 평양의 잡화상인 사이토상점에 들어가 장사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가토는 사이토상점에서 초기에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다 1897년 진남포의 개항으로 정미업을 보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신식 정미기를 가동시켜 효율적으로 정미 공정을 진행하고 효율적인 계량을 통하여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을 터득하였다. 이어 사이토의 비리로 대신 총지배인 등을 맡게 되면서 기업의 총괄적 경영을 경험하였고 러시아 측과도 빈번히 미곡을 거래하였다.

1917년 독립하여 이듬해 가토정미소를 창립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인 외에도 진남포의 조선인 및 중국인 자본가들도 동참하였다. 이어 객주업의 경력이 있거나, 창고업을 겸업한 기업인들도 포섭함으로써 안정적인 거래를 진행하고 자 하였다.

가토정미소는 진남포에서 시작하여 인천, 부산, 군산 등 당시 조선의 주요 항구로 회사를 확장해갔다. 정미업 외에도 미강유를 대량으로 생산, 수출하였다. 이렇게 다각적 방면의 경영을 토대로, 1936년 가토정미소와 별개로 ‘조선정미(주)’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산하에 여러 정미·제유 회사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러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총력체제에 접어들고 당국이 미곡 통제 강화하여 정미업에 대한 집중이 불가능해지자, 가토는 제유, 철강 등 타 사업으로 진출하였고, 자본금이 700만 원 이상으로까지 증자하였으며, 개인 자가용 비행기를 소유하게 될 정도로 일개 정미소를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이 시기 가토는 조선정미(주)라는 정미업에서 탈피하여 철강업까지 운영함으로써 ‘가토 그룹’의 오너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가토는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기여하였다. 러일전쟁 시기에는 군수지원을 통하여 협력하였다. 1920~30년대에는 미곡의 대일 수출을 통한 총독부의 산미증식정책으로의 기여, 동양척식주식회사¹⁵⁴)와 일본군으로의 미곡 납입 등을 통하여 공헌하였다.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로는 만주 출병 일본군에 대한 군용미 공급, 식민 당국과의 전시경제 체제 논의, 국방 헌납, 조선식량영단에서의 전시 식량 통제 정책 담당, 방위식량 회사 운영 등을 통하여 협조하였다.

결국 가토는 일제의 조선·중국 침략과 지배에 협력하였고, 조선총독부, 일본군 등과의 유착을 통하여 자신의 회사를 성장시켜나갔다. 따라서 그는 일제의 조선침략과 지배의 협력자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정미업과 미곡무역업에 종사한 재조일본인 자본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어 양조업, 제과업 등 미곡을 가공한 분야에서 활동한 일본인 기업가에 대해서도 검토되었으면 한다.

154)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식민지 조선의 토지의 합법적인 확보와 본토 일본으로부터의 농업 이민의 추진 등을 통하여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하려 하였다. (이규수, 「식민지 지배의 첩병, 동양척식주식회사」, 『내일을 여는 역사』 34, 2008, p.7.) 따라서 이 기관과 거래하며 벼와 같은 물자를 보내주는 행위는 동척의 정책에 대한 협력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京城日報』

『東亞日報』

『每日新報』

『釜山日報』

『時代日報』

『朝鮮公論』

『朝鮮新聞』

『中央日報』

『中外日報』

경성제국대학, 『신문체질』, 경성: 경성제국대학, 1935.

中田孝之介, 『제한인사명감』, 목포: 목포신보사, 1905.

中村資郎,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경성: 동아경제시보사, 1923.

_____,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경성: 동아경제시보사, 1927.

_____,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경성: 동아경제시보사, 1931.

_____,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경성: 동아경제시보사, 1933.

_____,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경성: 동아경제시보사, 1937.

_____,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경성: 동아경제시보사, 1939.

田中市之助, 『조선상공회의소발달사-13. 진남포』, 부산: 부산일보사, 1936.

前田力 편, 『진남포부사』, 진남포: 진남포부사 발행회, 1926.

민중시론사조선공로자명감간행회, 『조선공로자명감』, 경성: 민중시론사조선공로자명감간행회, 1935.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2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회사조합자료, <鎮南浦倉庫(株)>.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2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근현대회사조합자료, 〈大同銀行(株)〉.
-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회사조합자료, 〈朝鮮精米(株)〉.
-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회사조합자료, 〈朝鮮精米(株)〉.
-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회사조합자료, 〈加藤精米所(合資)〉.
-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회사조합자료, 〈朝鮮製鋼所(株)〉.
- 조선총독부, 『기념표창자명감: 조선총독부 시정25주년』, 경성: 조선총독부, 1935.
- 조선총독부 식산국, 『조선공장명감』, 경성: 조선총독부 식산국, 1932.
- 鎌田白堂, 『朝鮮の人物と事業.第1輯, 湖南篇』, 경성: 실업지조선사출판부, 1936.
- 강성신, “中日戰爭時期 日本의 華北 現地自活主義: 天津지역 米穀의 생산과 통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경남, 1894~1910년 진남포 일본군병참기지 건설과 도시 형성의 특성, 『한일관계사연구』 71, 2021.
- 김민화, 1930년대 부산미곡취인소의 설립과 활동, 『지역과 역사』 42, 2018.
- 김선미, 1930년대 미곡정책과 식민지주제의 전개, 『역사와 세계』 18, 1994.
- 김승, 1920~1930년대 재부(在釜) 일본경제인의 실태와 교역권의 특성, 『해항도시문화교섭학』, 4, 2011.
- 김영근, 세계 대공황기 노동력의 성격과 파업투쟁, 『역사와 현실』 11, 1994.
- 谷本雅之, 메이지 일본 경제발전의 ‘복층성’(複層性): ‘근대’ 대(對) ‘재래’의 이원론을 넘어서, 『일본비평』 19, 2018.

- 류상윤, 식민지 조선의 객주와 객주조합 , 『경제사학』 48(1), 2024.
- 류창호, 1920~30년대 ‘대인천’ 건설 운동과 지역주의 - 인천부세진흥회와 일본인 유력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 , 『역사와 현실』 128, 2023.
- 문영주, 20세기 전반기 인천 지역경제와 식민지 근대성 , 『인천학연구』 10, p.18, 2009.
- 신영숙, 유해정, 김미정, 해남도 일본군 ‘성노예’ 실태 조사 연구 보고 , 『여성연구논총』 , 17, 2002.
- 신주백, 용산과 일본군 용산기지의 변화 (1894~1945) , 『서울학연구』 29, 2007.
- 이가연, “개항장 일본인 자본가 연구: 러일전쟁 이전 이주 상층자본가를 중심으로“ ,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규수, 후지이 간타로(藤井寛太郎)의 한국진출과 농장경영 , 『대동문화연구』 49, 2005.
- _____, 식민지 지배의 침병, 동양척식주식회사 , 『내일을 여는 역사』 34, 2008.
- 이성호, 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 - 군산시의 사례 , 『쌀삶문명 연구』 1, 1998.
- 이송순, 『일제하 전시 농업정책과 농촌 경제』 , 서울: 선인, 2008.
- 이영학,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 , 『한국민족문화』 , 69, 2018.
- 이혜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의 설립과 확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임성모,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 '日滿一體'와 '鮮滿一如'의 갈등 , 『역사학보』 201, 2009.
- 정윤환, “1910~1920년대 仁川 精米業에 대한 研究”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최우영, 전시기일본의 철강배급통제정책의 전개 , 『일본연구』 37, 2008.
- 허영란, 열린 변방, 조슈(長州) - 메이지유신의 발상지 , 『역사비평』 81, 2007.
- 홍순연, 부산지역 근대 항만도시형성에 따른 항만활동의 변화 : 항만매축과

산업 활동 동향을 중심으로 , 『인문사회과학연구』 22(3), 2021.
XIE LI, “20세기 초 大連 항만의 하역체제와 노동자 연구”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加藤八千代, 『籾から精米・糠から油を: こめ油工業化の創始者加藤平太郎一代記』, 東京: 加藤平太郎伝刊行会, 1978.

_____, 『加藤平太郎人と事業: こめ油工業の先達』, 東京: 幸書房, 1991.

關東局文書課 編, 『關東局施政三十年業績調査資料』, 旅順: 關東局文書課, 1937.

古川文道, 「大仁川港の繁榮策」, 『仁川の緊要問題』, 東京: 朝鮮新聞社, 1932.

菱本長次, 『朝鮮米の研究』, : 千倉書房. 東京: 千倉書房, 1938.

ABSTRACT

Heitaro Kato's management of grain industry and his cooperation to Japanese domination in Joseon

Han, Dong-Yun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about Heitaro Kato's management of grain industry and cooperation activities for Japanese rule of Joseon. In this paper I examined Kato's settlement in Joseon and foundation of Kato Rice Mill, his domination of the grain distribution network and expansion into Joseon Rice Mill, his support for the Second Sino-Japanese War and corporate activities for developing into 'Kato's Group'. And in the course I also examined that how Kato developed his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Governor General of Joseon and Japanese military.

To conduct this study, Kato's biography that his daughter wrote by the use of her family and company data, dictionaries about Japanese in Joseon, and data of Kato's companies were extensively used. Also articles

of newspapers and magazines were utiliz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Kato was influenced by his parents' family and adopted family who engaged in a marine transport, and engaged in trade business. And at the time of the Sino-Japanese War, Kato settled in Jinnampo and learned a milling business skill under an adoptive brother of Saito and established Kato Rice Mill. The second, Kato dominated of distribution network of grain of the colonial Joseon expanding the rice milling factories into major areas that railroads and ports were connected such as Jinnampo, Incheon, Pusan and Gunsan. And squeeze industry of rice bran oil, trade of rice, farm investment etc besides milling business developed into a corporation. The third, he cooperated on Japanese food control policy in wartime under the rice control system because of Second Sino-Japanese War. And he developed his milling company into 'Kato's Group' containing other industries like steel and rice bran oil industries and business entry into China. Finally, Kato, who was a grain trader, cooperated on Japanese invasion and domination to Joseon. And he developed due to the back-scratching relationship with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and Japanese military. Therefore he was a cooperator against Japanese invasion and domination to Joseon.

From now on, I wish that researches about economic activities of capitalist, Japanese colonialist in Joseon, who engaged in milling industry and rice trade business in colonial period would be invigorated. And I wish that researches about Japanese businessman who engaged in other industries such as brewing industry, bakery business etc.

【Key words】 Heitaro Kato, Japanese colonialist in Joseon, Grain industry, Milling industry, Kato's Rice Mill, Joseon Mice Mill Coperation, Hisatro Saito, domination in Joseon, Wartime system